

시간을 되돌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2019년 2월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일본가기 전 김포공항에서 찍은 기념사진.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눈을 감으면 어느새 나는 내 고향, 평양 집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아 달콤한 냄새, 기분 좋은 바람, 해가 산꼭대기로 넘어가려는데, 머리 위에 잔뜩 물건을 이고 장사하러 나간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우리 집 마당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앞에 엄마 모습 희미하게 보입니다”

— 북녘의 엄마에게 보낸 길원옥 할머니의 편지 내용 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대학생 학보사 시절 수요시위 현장이었다. 지금은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초등학교생들도 참여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3-4명의 할머니와 활동가들로 약 10여명 정도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던 할머니가 바로 길원옥 할머니다. 할머니와 알고 지낸지도 어느덧 이십여 년이 지났다. 명절이면 세배도 하러가고, 민화투도 치고, 내복도 선물하고, 오사카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어린이들도 만나러 가고, 옛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내게는 가족 같은 분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길원옥 할머니가 충정로 경기대 인근 쉼터에서 마포구 연남동으로 이사



명절이면 길원옥 할머니는 연남동 '평화의우리집'에서 나에게 민화투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오고 나서는 더욱 만남의 횟수가 늘어났다. 친한 선후배들과 함께 만든 '우리동네 청년회'라는 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들의 쉼터인 연남동 '평화의우리집'에 찾아가서 대청소도 하고, 잡초도 뽑고, 지하에 쌓여 있는 짐정리도 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회원들이 직접 피켓도 만들고, 홍대 거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억인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강아술, 차빛나, 도마, 갤럭시익스프레스 등 홍대 뮤지션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돕기 콘서트도 기획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진전도 동료 사진가들과 국회에서 함께 진행했다.

이런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취재현

장에서 알 수가 없었던 것들을 더욱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다. 길원옥 할머니는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도 남자들 여러 명이 집안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커도 깜짝깜짝 놀라신다. 흰 죽을 싫어하시고 밥은 잡곡 넣은 밥을 좋아 하신다. 친 언니 같았던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동안 2층에 있는 김복동 할머니의 방 맞은편 소파에 앉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재일조선학교 장학사업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월체를 타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조호쿠 초등학교 학예회를 찾아 장학금과 나비티셔츠, 연필을 직접 전달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면 나도 고향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우리



제1071차 정기수요집회에 참석한 길원옥(왼쪽), 김복동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85차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와 소녀상

수요시위 현장에서는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거리의 인권운동가였지만, 쉼터와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아이들을 만날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13살 소녀의 모습이었다.

길 할머니는 2017년 8월, 15곡이 수록된 음반도 내시고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에서 무대에 올랐다. 수줍은 소녀처럼 할머니는 "신인가수 길원옥입니다. 기분이 좋다. 마음이 좋다"라고 인사하며 '한 많은 대동강야'를 부르셨다. 이처럼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이야기 하셨다.

말, 글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대야 네 모양이 그림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아 소식을 물어본다”

길원옥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어려서 평양으로 이사해 평양이 고향이다. 5남매 중 넷째인 할머니는 오빠가 둘, 언니가 하나. 남동생이 북녘에 있다. 세월이 흘러 남동생이나 조카들이 살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길 할머니는 13살이 되던 1940년 겨울,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가 도둑의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자. 벌금을 벌려고 중국 만주 하얼빈으로 갔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일터가 아닌 ‘위안소’였다.

1945년 18세에 해방이 되어 인천으로 귀국한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남루해 몇 개월이라도 돈을 벌어가려 했지만, 평양행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남쪽에 남은 할머니는 방송국의 이산가족 찾기에다 사연을 보냈지만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다. 수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열렸지만 수많은 이산가족들처럼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일본에 의해 끌려가 강제로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으로 고향을 가지 못한 역사의 피해자이다.



2019년 2월23일, 일본 오사카 텐노지 구레오오사카 중앙회관에서 이쿠노조선초급학교 예술발표모임 공연관람을 마친 길원옥 할머니가 어린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길 할머니는 재일조선학교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길원옥 할머니에게 마지막 소원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 공식 사죄와 더불어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27 판문점 회담을 통해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할머니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여전히 남북관계는 흑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함께 지내셨던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른바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일어나면서 길원옥 할머니가 살



2019년 2월6일, 한평생 친 언니처럼 지낸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정 앞에 두 눈을 감고 침통해 하는 길원옥 할머니.

고 계시던 연남동 ‘평화의우리집’은 명성교회로 반환이 되고 지금은 수양 아들 덕에 머무르고 계시다. 할머니 연세가 올해로 94세,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외부인 방문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최근 소식은 건강이 악화되어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물어보시면 “(평안북도 평양시) 서성리 76번지 26호”라고 또렷하게 대답하신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또 한분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생존자는 단 11명뿐이라는 소식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밝은 모습이 시계 유리에 비춰 보이고 있다.

들었다. 시간을 되돌려 80년 전 일본에 끌려가기 전 어머니의 품이 남은 고향으로 길원옥 할머니는 돌아가실 수 있을까? 북녘의 엄마에게 보낸 편지처럼, 올해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길원옥 할머니의 손에 ‘평양행 기차표’가 쥐여 주길 바란다. ♡